동아일보 사내보

東友

【 社是 】
민족의 표현기관으로 자임함
민주주의를 지지함
문화주의를 제창함

2018년 9월 3일 월요일
제225호

발행인
김재호

편집위원
권혜정(동아PDS)
김민지(동아E&D)
김석호(마케팅본부)
김영환(AD본부)
김종석(채널A 보도본부)
구희언(출판국)
남형주(재경국)
박형순(동아애드넷)
빈정훈(동아MD)
양형모(스포츠동아)
유성열(편집국)
이정아(동아사이언스)
이종원(문화사업본부)
정기상(동아닷컴)
정소림(경영지원국)
조현상(동아프린테크)
최한나(미래전략연구소)

(가나다순)

제작 : 경영총괄팀(구내 0939)

한 숨 더 깊게
한 발 더 멀리

폭염 속에서도 동아미디어그룹의 콘텐츠는 더욱 강한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우리의 땀이 깃든 콘텐츠들은 국경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갔고, 깊이있는 뉴스로 굵직한 사회 이슈를 이끌었습니다. 신선한 포맷과 다양한 주제를 다룬 프로그램들은 올 가을 시청자들에게 차별화된 재미를 줄 것입니다. 건강한 취미와 창의성으로 무장한 당신이 바로 동아의 내일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東亞日報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1 동아일보사

채널A 새 드라마 〈열두밤〉의 17초 분량의 티저 영상이 공개됐다. 이전까지의 티저영상이 주연 배우들의 분위기만 전하는 데 비해 공개된 영상은 지금까지 촬영한 다양한 장면을 담고 있다. 9월 말 첫 방송을 앞두고 제작일정이 중반에 접어들면서 〈열두밤〉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채널A 콘텐츠, 나라 밖에서도 인기 쑥

〈하트시그널〉 중국 리메이크판 방송 시작… 3일만에 4400만뷰
드라마 〈열두밤〉은 일본 유통사와 사전계약 진행 '러브콜'

'채널A 로맨스' 열풍이 국경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시즌 2까지 인기리에 종영한 〈하트시그널〉의 중국 리메이크 버전이 현지에서 방송을 시작했다. 미국에도 〈하트시그널〉 포맷 판매가 성사됐다. 9월 말 방송 예정으로 촬영이 한창인 채널A 드라마 〈열두밤〉은 일본과 미국 등 해외에서 사전 구매 러브콜을 받고 있다.

중국판 하트시그널 '온-에어'

〈하트시그널〉의 중국 리메이크 버전이 8월 26일부터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되고 있다. 중국판 타이틀은 〈심동적신호(心動的信号)〉로 청춘 남녀들이 시그널 하우스에 같이 머물며 '썸'을 타는 기존 형식을 유지했다. 반응도 뜨겁다. 중국판 하트시그널 1회는 3일만에 4400만 뷰를 기록했다(8월 29일 기준). 하트시그널 제작진이 콘셉트 및 설정 등에 대한 제작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도움을 줘 완성도 높은 리메이크 버전 제작이 가능했다.

중국내에서 〈하트시그널 시즌2〉의 인기도 여전히 높다. 중국 대형 SNS인 웨이보의 해시태그(#) 기능인 '화티' 검색 결과 'HEART SIGNAL' 화티가 보유한 팔로워 수는 1330만 명에 달한다. 중국 브이로그에도 "왜 김현우가 오영주를 선택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김도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 가보고 싶다" "〈하트시그널〉 중국버전도 기대된다" 등의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중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하트시그널〉 포맷 계약이 체결됐다. 해당 계약을 진행한 미국 대형 에이전시 관계자는 '미국식 로맨스'가 결합된 〈하트시그널〉 리메이크 버전에 큰 기대감을 보였다. 미국식 〈하트시그널〉의 형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직설적이고 솔직한 미국식 로맨스에 은근한 심리 추리적 요소가 배합된 한국식 로맨스가 합쳐질 경우 완전히 새로운 그림이 그려질 것이라는 반응이다.

"한국식 로맨스 기대감" 사전구매 러브콜

현재 〈열두밤〉은 일본 콘텐츠 유통사에 사전판매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공개된 〈열두밤〉 1막의 티저 영상을 확인한 일본 바이어는 "아름다운 청춘 영화와 같은 영상미"라고 평가했다. 또 "북촌, 한강변, 서울성곽 등 한국 내 외국인들이 잘 모르는 데이트 명소에 관심이 많은 해외 젊은 시청자들에게 딱 맞는 드라마"라며 "론칭이 기다려진다"는 반응을 보였다.

〈열두밤〉 제작진과 출연진들은 서울의 다양한 데이트 명소들을 담아내기 위해 올 여름 폭염 속에서도 촬영을 이어갔다.

일본 팬들 사이에선 한승연, 신현수 두 배우가 그려낼 '한국식 로맨스'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이미 〈하트시그널〉을 통해 '한국식 썸'의 매력을 확인한 일본 바이어들은 두 남녀 주인공이 만들어낼 설렘이 여성 시청 층의 공감을 다시 한 번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구매 의사를 밝혔다.

특히 한류스타인 한승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일본 바이어들은 한승연의 일본 팬미팅을 별도로 원하고 있을 정도다. 바이어들은 "일본 팬들이 한승연의 단독 15초 티저 영상을 본 후 벌써부터 추가 영상 및 사진자료들을 요청해 온다"며 "일본 내 한승연의 인기를 실감한다"고 전했다.

영어권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한류 전문 커뮤니티 'Soompi(숨피)'에도 〈열두밤〉에 대한 기대와 두 배우의 만남에 대한 내용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채널A 인스타그램이나 한승연의 SNS에 올라오는 〈열두밤〉 대본 리딩, 티저 영상 등을 공유하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경영전략실 콘텐츠브랜딩팀 이유진
제작본부 제작1팀 송병수

'HEART SIGNAL' 화티(중국 SNS 웨이보의 해시태그 기능)가 보유한 팔로워 수가 133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중국 내에서 〈하트시그널 시즌2〉에 대한 인기가 뜨겁다. 한 웨이보 이용자가 8월 27일 올린 "국내판(중국 리메이크 버전)을 보고 있으려니 갑자기 한국판 시즌2가 빨리 보고 싶어졌다"는 내용의 포스팅.

콘텐츠 커머스 확대하는 채널A… 〈하트시그널〉 브랜드 마스크 팩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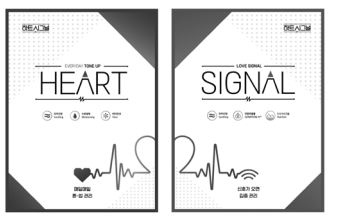
중국판 〈하트시그널〉 방영에 발맞춰 중국 시장에도 적극 진출

채널A가 〈하트시그널〉 브랜드를 뷰티 상품에 접목하는 콘텐츠 커머스를 확대한다. 채널A는 〈하트시그널〉 브랜드를 마스크 팩에 담은 '하트 마스크'와 '시그널 마스크'를 9월 중 출시한다.

'하트 마스크'는 데일리 미백관리를 통해 환하고 깨끗한 인상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 라인이며, '시그널 마스크'는 연인과의 특별한 날을 앞두고 집중 수분관리를 할 수 있는 라인이다.

두 제품 라인의 브랜드에는 〈하트시그널〉이 가지고 있는 설레고 순수한 사랑의 감정이 담겼다. 일반 면 시트보다 얇고 수분 함유 능력이 뛰어난 천연 셀룰로오스 시트로 제작돼 민감 피부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하트시그널〉 마스크는 8월 26일부터 방영하고 있는 중국판 〈하트시그널〉 방영에 발맞춰 중국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또 디유넷 콘텐츠 커머스팀은 9월 2일부터 4일까지 열리는 '2018 중국 광저우 국제 미용 전시회'에 참여해 〈하트시그널〉 마스크를 선보인다. 올해로 50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뷰티 전문 전시회로, 중국 및 전 세계의 바이어들에게 상품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다. 〈하트시그널〉이 중국의 웨이보 등 SNS에서 반응이 뜨거운 만큼, 〈하트시그널〉 마스크도 중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롭게 출시되는 〈하트시그널〉 마스크팩 2종 디자인.

경영전략실 콘텐츠사업팀 정선진

“재미가 돋보인다” 가을 맞아 풍성해진 채널A 예능

〈팔아야 귀국〉 시청률과 중소기업 상생 ‘두 마리 토끼’ 잡는게 목표
〈보컬플레이〉 국내 최초 아카펠라 음악 예능… 차별화된 재미 선사
〈식구일지〉 skyTV와 공동제작 및 동시방영으로 화제몰이

2018년 가을을 맞이해 채널A가 더욱 풍성해진 프로그램들로 찾아온다. 신선한 포맷과 다양한 주제를 다룬 프로그램들이 시청자들에게 차별화된 즐거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청률과 중기 상생 잡는다 〈팔아야 귀국〉

9월 방송예정인 신규 예능 프로그램 〈팔아야 귀국〉은 8명의 스타들이 해외 홈쇼핑에서 대한민국 우수 제품을 완판(완전판매)하는 것에 도전하는 프로그램이다. 전략기획본부가 야심 차게 준비한 홈쇼핑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으로, 시청률과 중소기업 상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겠다는 계획이다.

〈팔아야 귀국〉은 ‘중소기업 제품 소개 프로그램은 재미없다’는 편견에 과감한 도전장을 던진다. ‘2개 나라 동 시간 홈쇼핑 배틀’이란 차별화된 포맷을 택했다. 좌충우돌 적응해가는 스타들의 모습을 관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중소기업의 제품을 널리 알리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팔아야 귀국〉 출연진들이 예고방송에서 완판(완전판매)을 자신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팔아야 귀국〉은 홈쇼핑 1위인 40대 여성과 아이돌 바라기 20대 여성 등 쇼핑과 예능프로그램에 관심이 높은 20~40대 여성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진출 노하우와 알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해외진출을 꿈꾸고 있는 중소기업체들도 타깃층으로 끌어들인다는 구상이다. 기존 제품을 팔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연예인 콜라보를 통한 시그니처 상품 개발을 통해 새로운 상생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차별화된 콘셉트와 화려한 출연진으로 방송 전부터 관심이 뜨겁다. 말레이시아 판매를 담당한 ‘지라인’ 팀(지석진, 제아, 양세찬, 성종)과 태국 판매를 담당한 ‘특라인’ 팀(이특, 신동, 장도연, 이용진)의 현지 촬영은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팔아야 귀국〉은 국내외 팬들을 위해 진행된 실시간 방송인 V라이브도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차별화한 음악 예능 〈보컬플레이〉

신 개념 음악 예능 〈보컬플레이〉는 11월 방송을 위해 준비가 한창이다. 〈보컬플레이〉는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아카펠라 쇼’다.

음악 예능은 다양한 파생 콘텐츠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매력이 크다. 여러 방송사가 비슷비슷한 음악예능 프로그램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상황에서 〈보컬플레이〉는 차별화된 포인트로 음악 예능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는 각오다. 우선 신이 만든 최고의 악기는 사람의 목소리라는 기획의도를 바탕으로, 오로지 목소리로 만든 아름다운 화음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감동과 전율을 선사할 예정이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아카펠라 버전으로 편곡한 무대를 선보이는 것도 색다르다. 아카펠라는 제약 없이 모든 장르 구현이 가능하다. 원곡을 다양한 버전의 아카펠라로 커버해 또 다른 느낌의 곡으로 재탄생시킨다. 이를 위해 힙합, EDM, R&B 등 다양한 음악 장르의 유명 아티스트들이 프로듀서로 직접 나선다. 이들 아티스트들이 출연자들과 팀을 이루어 만드는 아카펠라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재미를 시청자들에게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skyTV와 공동제작, 동시방영 〈식구일지〉

김성주와 소유진이 MC를 맡은 신규 가족 예능 프로그램 〈식구일지〉도 9월 중 찾아온다. 〈식구일지〉는 채널A가 다른 방송사와 공동 제작해 동시 방송한다. 스카이티브이(skyTV)와 공동 제작했고, 채널A와 스카이드라마(skyDrama) 채널에서 동시방송 하며 본격적인 화제몰이에 나설 예정이다.

신규 가족예능 〈식구일지〉 포스터.

〈식구일지〉는 가족끼리 저녁 한 끼 먹기 힘든 도시생활 속에서 ‘가족애’를 생각해보고 최근 트렌드인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응원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탤런트 박준규, 가수 겸 탤런트 예원 가족이 출연한다. 스페인 출신 모델 장민은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사는 새로운 가족 형태를 보여준다.

이들 출연진들은 ‘홈밥 프로젝트’에 도전한다. 30일 동안 매일 저녁 7시에 모여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어야 한다. 7시 정각이 되었을 때 밥상 위에 차려져 있는 음식만 먹을 수 있으며, 7시 정각이 되었을 때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없으면 도전에 실패하게 된다. 이런 미션에 성공한 가족은 1000만 원의 상금을 받게 된다.

MC 소유진은 “저녁식사가 주는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식구일지〉 시청자들도 또한 방송을 본 뒤 가족 사이에 작은 변화가 생기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편성본부 콘텐츠커뮤니케이션팀 이기원

4차 산업혁명 이끄는 국내 최대 농업박람회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2018 A Farm Show’ 개최… 2014년 시작돼 5회째 행사
귀농귀촌인 정착과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에 초점, 체험거리도 대폭 강화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하는 ‘2018 A Farm Show 창농·귀농 박람회’가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사흘간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양재동) aT센터에서 열렸다.

A Farm Show는 2014년 시작된 국내 창농·귀농분야 대표 박람회다. 올해는 ‘혁신농업으로 100만 일자리를’ ‘100년 먹거리, 농업이 미래다’를 핵심 슬로건으로 정했다. 농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성장 동력이자 일자리 창출의 보고로 거듭나는데 동아미디어그룹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제1전시장(1층)에서는 전국 지자체의 귀농귀촌 정보와 국내 대표 기업들이 보유한 혁신 농업기술을 선보인다. 제2전시장(3층)에는 △휴양체험관 △창업벤처관 △에이팜마켓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배치했다.

지난해 열린 A Farm Show 창농·귀농 박람회에서 트랙터 시승 관람객들이 박람회장 채용관에 마련된 한 부스에서 트랙터를 시승해 보고 있다. 사진=편집국 사진부 양회성

대표 프로그램인 ‘농담(農談) 토크 콘서트’는 귀농귀촌인의 정착과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블루베리 가공과 연계한 관광체험, ‘한국판 리틀포레스트’를 앞세운 영농조합 운영 등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정착에 성공한 사업가들의 진솔한 경험담도 들을 수 있었다. 신선한 우리 농산물로 만든 요리를 선보이는 ‘에이팜 파티’는 참가자들의 발길을 이끌었다.

체험거리도 대폭 강화했다. 말, 곤충 등 우리에게 친숙한 아이템은 물론이고 어린이들이 수의사, 플로리스트 등 미래 직업을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추석을 앞두고 전국의 우수 농산물을 싼값에 살 수 있는 ‘에이팜마켓’은 작년의 2배 이상으로 규모를 확대했다. 마켓 가운데 마련한 간이무대에서는 농산물 경매, 수박 빨리 먹기 대회, 칵테일 쇼 등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색다른 이벤트가 열렸다.

전략기획본부 사업전략팀 박창규

스포츠 생중계도 채널A가 주관 방송하니 다르네

8월 11일 강원도 인제 스피디움에서 열린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5라운드’를 앞두고 ‘채널A 스포츠’ 명찰을 단 캐스터들이 경기 진행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나이트 레이스라는 변수를 어떻게 이겨낼지가 관건입니다!”

8월 11일 칠흑 같이 어두운 강원도 인제 스피디움. 레이스 차량들의 불빛과 굉음이 어둠을 가로지르자 ‘채널A 스포츠’ 명찰을 단 캐스터들의 열정적인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졌다.

채널A는 국내 최고 레이싱 경기인 ‘2018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의 주관방송사로 참여하고 있다. 6개월간 총 9라운드에 걸쳐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채널A가 생중계하고 KBS, 슈퍼액션, IB SPORTS 등에서 녹화 중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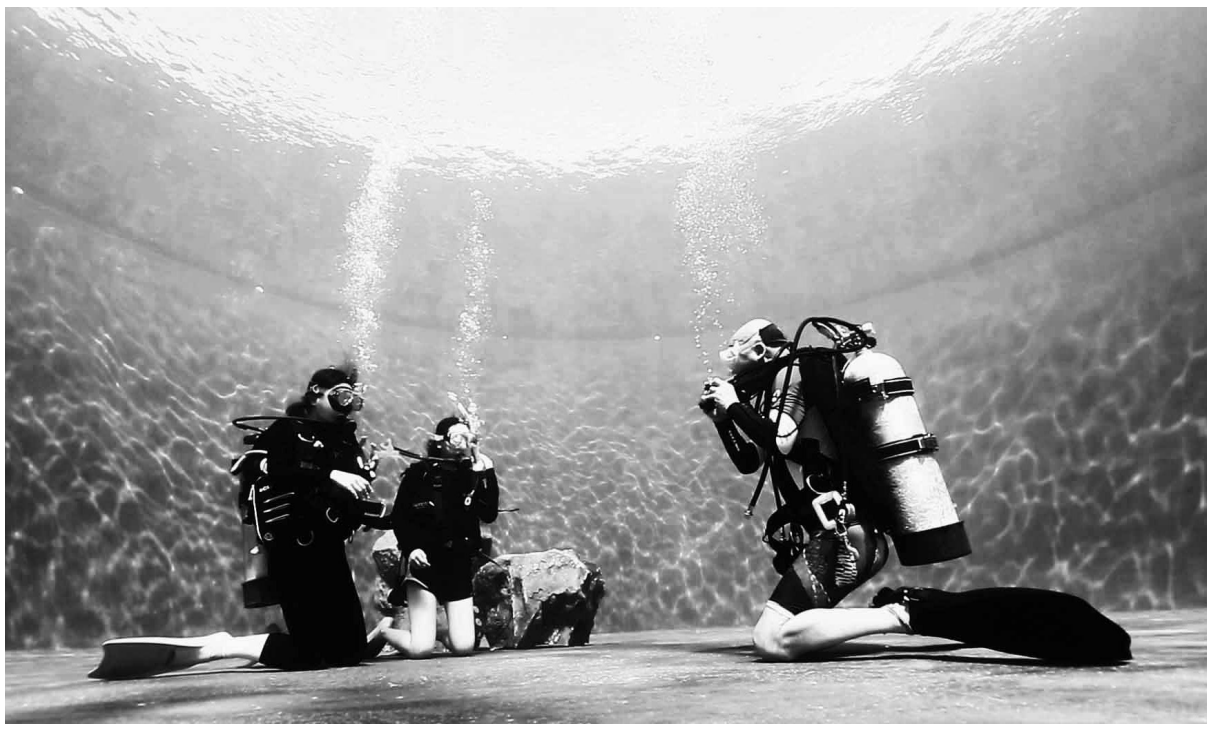
레이싱은 1000분의 1초로 승부를 내는 스포츠 경기로, 중계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채널A는 마라톤 등 대형 스포츠 중계를 진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감 넘치는 중계를 하고 있다. 보통 생중계는 현장에서 경기화면을 만들고 본사 부조정실에서 자막이나 기록 등을 입히지만, 채널A 슈퍼레이스 중계는 현장에서 방송에 나가는 최종 화면을 전부 만들어 내는 시스템을 구현했다.

프로야구 중계도 성공적인 첫발을 내딛었다. 채널A는 ‘뉴스가 있는 중계’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스포츠전문 채널들과 경쟁해 ‘2018 KBO 퓨처스리그(프로야구 2군) 서머리그’ 3경기 중계를 낙찰받았다. 이는 한 방송사가 낙찰 받을 수 있는 최대 경기수다. ‘퓨처스 서머리그’는 7~8월 혹서기 동안 퓨처스리그 선수들의 건강보호와 체력관리를 위해 야간에 경기를 치르는 제도다. 채널A가 낙찰받은 퓨처스리그 서머리그 3경기는 7월 23일과 30일, 8월 6일에 채널A플러스를 통해 전국 야구팬들에게 생생하게 전해졌다.

전략기획본부 프로그램제작팀 김순겸

주짓수-복싱-스쿠버다이빙… 남다르게 단련하는 기자들

주짓수 통해 높은 성취감 얻어, 복싱으로 업무 스트레스 해소
스쿠버다이빙을 통해 얻은 자신감으로 새로운 분야에 과감히 도전


채널A 스포츠부 김유빈 기자(왼쪽)가 스쿠버다이빙 자격증을 따기 위해 물 속에서 훈련하고 있다.

한번 관심이 꽂힌 사안은 끈질긴 취재로 결국 기사화시키는 편집국 경제부 송충현 기자가 6년 째 열중하는 스포츠가 있다. 일본 전통 무예인 유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격투기 '주짓수'다. 유도보다 실전 격투의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말이나 쉬는 시간을 이용해 주짓수를 즐긴다는 그는 꾸준히 한 만큼 실력도 수준급이다.

송 기자는 매번 실전을 방불케 하는 연습을 통해 전쟁터 같은 취재현장을 헤쳐 나가는 정신력과 강인한 체력을 키울 수 있었다고 했다.

주짓수 승급심사에서 사진부 양회성 기자가 상대를 제압하고 있다.

그렇다고 주짓수를 단순히 몸만 쓰는 운동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송 기자는 "몸으로 하는 체스라고 할 만큼 머리도 써야하는 게 주짓수의 매력"이라고 강조했다.

높은 성취감에 주짓수 배우기 열풍

주짓수 경기장에서 상대를 제압하는 편집국 사진부 양회성 기자의 강렬한 눈빛은 현장에서 카메라를 들고 종횡무진 내달릴 때의 눈빛과 흡사하다. 양 기자 역시 3년 동안 주짓수 실력을 닦아왔다. 그는 "현대인이 살아가면서 타인의 옷깃이나 멱살을 쥔 채 온 힘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겠느냐"며 "기술을 공부할수록 실력이 늘어 성취감이 높다"고 강력 추천하기도 했다. 주변에선 "주짓수 도장을 차릴 기세"라며 감탄했다. 최근에는 보도본부 정치부 박민우 기자도 주짓수에 발을 들였다.

워킹맘인 보도본부 보도제작팀 김유림 기자는 7개월째 복싱을 배우고 있다. 올해 2월 체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복싱을 시작했지만 이젠 "땀 흘리는 재미를 알아버렸다"고 말했다. 김 기자는 "샌드백을 칠 때마다 일과 가정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모두 날아가는 기분"이라며 "재미가 붙어 이제는 주3회 이상 운동할 정도"라고 말했다.

김 기자가 복싱을 배운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보도본부 홍성규 사회부장도 최근 복싱을 시작했다. 보도본부 보도제작팀 전혜정 기자도 김 기자를 따라가 4번 정도 복싱을 배웠다.

짜릿한 자극, 끈끈한 동료애

현장기자 시절 아이템 발굴을 위해 과감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윤수민 보도본부 편집부 기자는 올해 초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스쿠버다이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오픈 워터 자격증을 따기로 결심한 것이다. 스쿠버다이빙 강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채널A 뉴스비전 정기섭 영상취재기자의 도움을 받아 4월 오픈 워터 자격증을 따는데 성공했다. 윤 기자는 "처음에는 과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도 했지만 스쿠버다이빙에 성공하면서 자신감을 얻었다"며 "업무 측면에서도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윤 기자의 도전정신은 다른 기자들에게도 큰 자극제가 됐다. 윤 기자가 오픈 워터 자격증을 땄다는 소식을 들은 정지영 뉴스룸지원팀 기자는 7월 속초 바다에서 자격증을 땄다. 곧이어 김유빈 보도본부 스포츠부 기자도 채널A '쇼미더 스포츠' 아이템을 취재하며 자격증을 얻었다.

박훈상 노동조합 사무국장, 김철중 김

> 실전 같은 연습을 통해
> 정신력과 강인한 체력을 키워

배중 편집국 기자 등은 매주 농구 모임을 해오고 있다. 모임이 시작된 지 3년이 넘었다. 최근엔 홍진환 노조위원장도 농구모임에 참여하기로 했다. 주말 농구모임은 토요일 오전 흠뻑 땀을 흘리며 끈끈한 동료애를 쌓는 모임으로 자리매김했다.

편집국 뉴스룸지원팀 정지영

"깊이가 남달랐다" 폭염에도 강했던 DAMG 콘텐츠

'드루킹' 특검취재팀 단독기사 29개… 이틀에 1건 꼴
채널A는 '북 석탄 반입' 러시아 후속취재로 이슈 키워

'북한산 석탄을 싣고 온 배가 세 척이 더 있었다'는 내용의 채널A 단독보도.

동아일보와 채널A가 '드루킹 특검', '북한산 석탄 반입' 등 주요 국면에서 연일 단독 보도를 쏟아내며 이슈를 주도했다. 끈질긴 취재와 꼼꼼한 팩트 확인 등으로 큰 사건에 강하다는 전통적인 평가를 재확인했다.

한 발 앞선 취재로 이슈선점

편집국 특검 취재팀(정성택 김동혁)은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의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에 담겨 있던 김 씨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시그널(보안 메신저 프로그램) 대화 파일과 김 씨가 김 지사에게 전달한 재벌개혁 문건, '2017년 대선 경인선 활동 백서' 등의 문건을 단독으로 입수해 보도했다. 7월 27일 특검팀이 출범한 이후 동아일보 특검 취재팀은 8월 17일까지 보도한 단독기사만 29개(닷컴기사 포함)에 이른다. 이틀에 한 번 이상 단독 기사를 쓴 셈이다. 구체적으로 7월 31일자 '김경수, 작년 대선 전 드루킹에 재벌개혁 공약 의견 구했다'는 제목의 첫 단독 보도는 2017년 1월 김 지사와 김 씨가 재벌개혁 방안에 대해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을 근거로 작성된 기사다. '드루킹' 김 씨가 지난해 대선 전 김 지사로부터 재벌개혁 정책 공약 자문요청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다음날 8월 1일자엔 '드루킹, 김경수에 개성공단 2000만평 개발 정책도 제안했다'는 후속 단독 기사도 실렸다. 이렇게 8월 11일까지 12일 동안 총 11개의 지면 단독 기사를 이어갔다.

취재팀은 특검이 출범하기 전부터 서울 서초구 사무실 건물에 들어가 취재원을 뚫었다. 취재원의 집 앞에서 '뻗치기'를 하고, 타사 기자들이 모두 철수한 새벽 2시 경 귀가하는 수사팀 관계자를 상대로 끈질기게 취재하고, 설득한 끝에 어렵게 얻어낸 결과물들이다.

특검팀 출범 이후에는 특검과 특검보, 변호인 등 주요 취재대상의 주말을 공략하는데 힘썼다. 특검의 집이라고 파악한 집앞에서 주말 오전 내내 뻗치기를 했지만 과거 주소여서 허탕을 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특검의 집주소를 알아내 찾아갔다.

발로 뛰어 찾아낸 결정적 문건

채널A는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을 집중취재하며 이슈를 주도했다. 올 7월 VOA(미국의 소리)가 북한산 석탄 의혹을 기사화하고 국내 언론에서도 관련 보도가 나오기 시작할 무렵, 채널A 보도본부 정치부는 결정적인 문건을 입수했다. 해당 문건에는 북한산 석탄이 어떻게 반입됐는지 상세하게 담겨있었다.

문건을 손에 쥔 취재팀은 사실 확인 차 지방에 위치한 석탄 수입업체를 직접 찾아갔다. 수입업체 관계자는 관세청 조사를 받은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지만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추가 확인을 거친 뒤 결국 8월 2일 정치부는 '북한산 석탄을 우리나라에 싣고 온 배가 당초 알려진 두 척 외에 세 척이 더 있었고 국내 은행의 신용장을 통해 거래가 진행됐다'는 단독 보도를 할 수 있었다. 그날 밤 연합뉴스를 비롯한 통신사들이 보도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다음날 조선일보 등 다수 언론에서 같은 내용의 기사를 작성했다. VOA도 채널A 보도를 그대로 인용한 기사를 내보냈다.

후속 보도도 이어졌다. 이동재 기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사할린으로 급파돼 해외 취재에 나섰다. 생생한 현장 영상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현지 노동자의 인터뷰도 뉴스에 담을 수 있었다.

결국 10개월째 조사 중이라던 관세청은 8월 10일 북한산 석탄 반입을 공식 인정했다.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 요구가 나오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 원내대표의 오찬에서도 논란이 됐다. 여기에 미국의 독자제재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세계가 주목하는 이슈로 커진 북한산 석탄 이슈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편집국 사회부 정성택
보도본부 정치부 이동은

10월은 마라톤의 달… 3주 연속 3색 마라톤 즐겨요

서울 '도심 만끽', 경주 '핑크뮬리 인증샷', 공주 '청정코스'
참가 접수는 각 대회 홈페이지에서 진행

올 가을 세 가지 컬러의 동아마라톤과 함께 자신의 매력을 뽐내보자.

10월은 동아마라톤의 달이다. 둘째 주부터 3주 연속으로 일요일에 서울달리기, 경주국제마라톤, 공주백제마라톤이 열린다. 유난히 더웠던 여름을 보내고 청량한 가을을 맞이하는 러너들은 어느 대회에 참가할지 행복한 고민에 빠진다.

런돌핀 느끼는 '서울달리기'

10월 14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서울달리기는 '런돌핀(러닝+엔돌핀)'을 느낄 수 있는 젊은 축제다. 에너지 넘치는 20~30대가 참가자의 80%에 이른다. 대회 참가 부문은 10km와 하프코스(21.0975km)로 나뉘어져있다. 넓고 쾌적한 세종대로를 출발해 종로~동대문~을지로~청계천을 순환하는 10km 코스는 서울 명소를 지나는 명품 코스다.

해외 엘리트 선수와 같이 뛰며 최고 기록에 도전하는 10km 오픈국제부문도 마련돼 있다. 하프코스는 서울광장에서 출발해 종로, 흥인지문을 지나 청계6가까지는 10km와 같이 달리지만 이후 중랑천으로 꺾어 한강시민공원에 진입한다. 한남대교에서 방향을 틀어 한강 풍경을 즐기다 서울숲을 지나 뚝섬유원지로 골인한다. 피니시라인을 통과하면 뚝섬의 스카이라인이 빚는 시원한 풍경을 만난다.

참가자 전원에게 미즈노 기능성 티셔츠를 제공한다.

핑크빛 낭만 '경주국제마라톤'

10월 21일 열리는 경주국제마라톤에서는 핑크빛 낭만 코스를 달릴 수 있다. 경주의 봄에 벚꽃이 있다면 가을에는 분홍색 억새풀인 핑크뮬리가 문화 유적지와 코스 곳곳에 만개해 있다. 경주마라톤 코스는 첨성대 등 천년고도의 정취가 느껴지는 필수 관광지를 모두 지나간다. 성인만 참가할 수 있는 하프 및 풀코스와 달리 5km, 10km 부문은 연령제한이 없어 가족과 함께하는 가을 나들이로도 손색이 없다.

핑크뮬리가 피어있는 곳마다 몰려드는 사람들이 부담스럽다면 경주국제마라톤의 통제된 코스 곳곳에 피어있는 핑크뮬리를 배경으로 여유롭게 '인증샷' 찍기를 추천한다.

무공해 청정 '공주백제마라톤'

경주에서 신라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면 10월 28일 공주에선 백제 700년 역사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금강을 따라 백제큰길, 무령왕릉, 공산성을 지나는 공주백제마라톤은 무공해 청정 코스는 백제문화 유적과 가을 풍광을 만끽하며 달리기에 안성맞춤이다. 공주마라톤은 아침 일찍 공주에 도착해 마라톤과 공주관광을 '1+1'로 즐긴 뒤 돌아가는 당일치기 여행코스로도 사랑받는다.

경주마라톤 코스는 경주 고분 등 천년고도의 정취가 느껴지는 필수 관광지를 모두 지나간다.

공주백제마라톤과 경주국제마라톤은 풀, 하프, 10km, 5km 등 4개 부문에 참가할 수 있다. 풀, 하프, 10km 참가자에게는 코오롱 스포츠의 반팔 기능성 티셔츠를, 5km 참가자에게는 스포츠 양말을 기념품으로 제공한다.

참가 접수는 각 대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포털 사이트에서 '동아마라톤'을 검색하면 된다. 가을 여행을 계획하는 사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문화사업본부 스포츠기획팀 박형준

채널A 경력 입사자

새 식구를 소개합니다

이름 / 부서

① 출생연도
② 최종 직장/학교
③ 입사 후 포부
④ 요즘 관심사

최효정 /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 신성장동력팀

① 1983년
② 금호타이어 CS팀
③ 미디어 분야에 처음 도전한다는 두려움과 설렘을 동시에 느낍니다.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잘한다는 칭찬 듣고 싶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일하겠습니다.
④ 요즘 폭염 때문에 모두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용직이나 어르신들은 이 더위를 어찌 이겨내실지 걱정입니다. 폭염으로 인해 사망자도 늘어나고 작물들도 많은 피해를 본다고 하니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명옥 / 채널A
편성본부 플랫폼운영팀

① 1993년
② 스포티비
③ 시청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아미디어그룹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④ 휴일을 앞두고 치맥 먹는 재미에 빠져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먹는 치킨과 맥주는 꿀맛입니다. 맛있는 치킨집이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東友는 몸神이다

면역력 UP! 천연 항산화제 '재첩 회무침'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번식하기 좋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공기 중에 있는 세균과 곰팡이가 우리 몸을 위협합니다. 무더운 여름, 무기력증과 소화불량, 두통이 생기는 것도 기관지를 통해 우리 몸에 침입한 세균과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이번 〈몸신〉에서는 면역력을 올리는데 도움을 주는 재첩을 주 재료로 하는 '재첩 회무침' 요리법을 소개합니다. 먼저 삶은 재첩 400g과 상추, 오이 1/2개, 당근 1/2개, 미나리 1/4단, 비트 1/4개, 쪽파 약간, 양배추 1/8개, 청고추 1개를 채 썰어서 준비합니다. 고추장 5큰술, 다진 매실 2컵, 매실원액 2컵, 다진 마늘 1큰술, 참깨 2큰술을 넣고 매실 초고추장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채소를 동그랗게 둘러 담고, 가운데에 삶은 재첩을 올린 후 매실 초고추장과 참깨를 뿌려주면 면역력 증강에 좋은 '재첩 회무침'이 완성됩니다.

프로그램 홈페이지(www.ichannela.com)를 통해 자세한 레시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성본부 콘텐츠편성전략팀 노수아

① 삶은 재첩 400g(종이컵으로 3컵)을 준비합니다.

② 상추 3장, 오이 1/2개, 당근 1/2개, 미나리 1/4단, 비트 1/4개, 쪽파, 양배추 1/8개, 청고추1개를 채 썰어서 준비합니다.

③ 고추장 5큰술, 다진 매실 2컵, 매실원액 2컵, 다진마늘 1큰술, 참깨 2큰술을 넣고 매실 초고추장 양념을 만듭니다.

④ 채 썬 재료를 동그랗게 둘러 담고, 가운데에 삶은 재첩을 올린 후 매실 초고추장과 참깨를 뿌려줍니다.

DC형 퇴직연금 운용기관 6곳으로 늘어

9월 오프라인 홍보부스 설치… Q&A로 알아보는 '퇴직연금 제도'

동아일보사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6곳으로 증가하면서 퇴직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동아일보 재경국 재무팀은 9월 18일과 19일 이틀간 퇴직연금 홍보를 위한 '오프라인 홍보 부스'를 충정로 사옥 9층 회의실(18일)과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19일)에서 열 예정이다. 오프라인 부스 운영에 앞서 사원들로부터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동아일보사는 어떤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중인가.

A 2006년부터 퇴직금 운용을 회사가 책임지는 확정급여형(DB)과 퇴직금 운용을 가입자가 직접 하는 확정기여형(DC) 제도를 모두 도입해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개인이 선택 가능한 DC사업자에는 삼성증권, 국민은행 2개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은행, 산업은행 4개 사업자가 추가돼 사원들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

Q DB제도와 DC제도의 차이는 무엇인가.

A 두 제도 모두 근로자가 지급받는 법정 퇴직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이를 운용하는 책임 주체에 있어 차이가 있다. DB는 회사, DC는 근로자 개인이 퇴직금 운용 수익 및 손실에 대한 책임이 있다. DB형의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 운용 결과와 상관없이 사전에 정해진 일정 수준의 퇴직급여를 보장받게 되며, 적립금 운용상품 중 원리금 보장상품 비중이 높다. 반면 DC형은 근로자가 자신의 투자성향에 따라 적립금 운용상품을 직접 결정하며, 그 결과에 따라 손실을 볼 수도 있지만 수익이 나면 더 많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Q DC제도는 무조건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는가.

A 그렇지 않다. DC에서 허용하는 금융상품은 원리금 보장형상품(정기예금)부터 초고위험/초고수익형 상품(주식형펀드)까지 다양하게 있다. 본인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Q 최초 선택한 DC기관사는 바꿀 수 없는가.

A 그렇지 않다. 본사가 계약한 DC사업자 중 한 곳으로 이전 가능하다. 단, 이전을 위해서는 현재 투자 중인 상품을 현금화(매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도 해지 패널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Q 개인이 운용하는 DC제도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는가.

A 기본적으로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가 있다. 회사에서 불입하는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수수료를 부담하나, 근로자 본인이 추가로 납입하는 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재경국 재무팀 남형주